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 답변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  
과학중심도시 대전에서...”



최진동 의원  
(교육의원)





## \* 최진동 의원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시장 · 교육감과의 일괄질문 · 답변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 ◎ 최진동 의원

교육의원 최진동입니다.

존경하는 광영교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50만 대전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전교육의 비전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인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기에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 송구합니다.

첫째, 대전과학영재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문제, 둘째, 대전 국제중·고등학교 설립 추진상황, 셋째,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과학영재학교의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신호 교육감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도전해온 과학영재 학교 유치노력이 염홍철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우리 시의원의 숨은 노력 그리고 150만 시민의 염원이 한데 모여 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대전과학고등학교가 강원·충청권의 과학영재 학교로 교육부로부터 지정된 것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지구 지점과 연계할 수 있고, 우리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수많은 국책 연구기관 및 KAIST 등과 유기적 체제를 갖추으로써 과학·기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일반계 동신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전환을 승인받아 2014년 3월 대전과학영재학교와 가칭 제1과학고 동시 개교를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과학인재 육성기반 구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 기본계획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 대전과학고등학교는 2014년 3월 1일자로 학년당 6학급 규모의 대전과학영재학교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전과학영재학교 2014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99명 선발에 전국에서 2,055명의 학생이 지원하여 입학 경쟁률 20.7 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경쟁률 15.4 대 1에 훨씬 웃도는 수치로 새로 개교하는 대전과학영재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전과학영재학교는 1단계 1차 합격자 발표, 2단계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검사, 3단계 인성면접·과학영재 캠프를 거쳐 7월 19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대전과학영재학교는 우수한 과학인재의 요람으로 많은 기대 속에 개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과학영재학교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의 중장기계획을 살펴보면 지하주차장 신축, 성두관과 기숙사 A동 증축 및 개·보수, 다산관과 식당·체육관동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4월 대전시와 시교육청 간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을 통해 과학영재학교의 재정지원, 교육여건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약속은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 승인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 6월에는 시와 교육청 간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전환추진에 소요되는 총예산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 있었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은 과학영재 학교 전환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운영비 총액의 50%를 연차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시에 요청하였고 시설비 총액의 50%를 4년간 연차별로 지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시의 총 시설비 지원 예정액 82억 원 중 2013년 지원 예정이었던 40억 원은 어찌되었는지 본예산에 10억 원만 계상되었고, 이후 1회 추경예산에는 일절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시장께서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비 지원 시설비 비법정 전출금 40억 원 중 본예산에 반영된 10억 원을 제외한 30억 원에 대해 연내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호 교육감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대전과학영재학교 운영을 위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자체 지원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2014년 3월 설립에 차질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마련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프리젠테이션 설명개시)

입시부정이 불거진 서울의 모 국제중학교 사태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국제중 폐지 법률안까지 발의되어 있고,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와 기초과학연구원 설립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 추진경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순서는 국제중·고 설립 추진배경, 설립 및 운영계획, 선발전형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살펴본 후 교육감께 관련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 지정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인문·사회 통합형 중·고등학교의 부재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타시·도로 유출되고 있고, 세종시 출범 및 신동둔곡지구 첨단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및 귀국자 자녀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 마련과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국제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설립의 근거로는 「교육기본법」 제19조 영재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특성화중학교,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국내에 국제중학교는 대원·영훈·청심·부산국제중 등 4개교가 있고, 국제고등학교는 부산·서울·인천·동탄·고양·청심·세종국제고 등 7개교가 있는데, 2015년 3월 대전과 울산에 국제중·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타시·도와 달리 대전국제중·고등학교는 공립으로 하되, 중·고 병설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당시 예정학교 부지로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로 국제중학교는 12학급에 학생 300명, 국제고등학교는 18학급에 학생 450명 규모로 설립예산은 각각 235억 원과 36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시설비, 비품 구입비와 국제고 정원의 40%인 180명의 기숙사 예산을 포함한 소요예산 추정치는 총 602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자체 예산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정원 내 100명, 정원 외 30명을 합한 130명을 예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배려대상자 20명, 외국인학생 25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원 내 전형은 일반전형과 귀국자로 분류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경제적 배려 대상자와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이루어집니다.

정원 외 전형은 국가유공자 전형, 특례 전형, 외국인학생으로 이루어지는데 첨단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외국인학생 전형이 눈에 띕니다.

대전국제고등학교는 국제고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전형별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은 국제중학교와 비슷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2015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정원 내 150명, 정원 외 38명을 합한 188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기본 틀은 국제중의 경우 국제이해 및 외국어를 특성화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국제고는 국내진학을 목표로 하는 국제과정 I 과정과 해외대학 진학 희망자 및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과정 II를 개설·운영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자료와 같이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추진 경과와 추진과제 등에 대해 몇 가지 교육감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시점에서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에 재정적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으로 국제중·고 설립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불거진 국제중 비리사건 등과 관련하여 선발 과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발유형이 자기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비경제적·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방식으로 인해 부유층 자녀의 특혜 입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외국의 우수 사례와 타사도 자료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제중·고등학교 수업료가 일반학교 수준이라 하여도 국제중·고의 특성상 국제 상호교류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등 학부모 비용부담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교육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 공무 국외활동으로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말레이시아 페어뷰국제학교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특성상 국외 체험활동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학부모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전국제중·고등학교도 교육과정 편성에 이러한 점이 예상되는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 외에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확인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2011년 제1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했던 사안으로 염홍철 시장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본 의원은 2003년부터 2005년에 매입하여 이미 설립된 23개교에 대한 408여억 원이 미전출되고 있음을 질문드리고 전출계획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 미전출금 408억 원에 대해 도안·학하 지구 학교용지매입비 전출부담이 경감되는 시점인 2014년부터 10년간 연차별로 전출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대전의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후 2011년 8월 대전시와 교육청 간 협의가 있었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분할 전출하기로 한 협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2013년 6월 대전시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억 원, 2015년 20억 원, 2016년 30억 원, 2017년 42억 원 그리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51억 원씩 연차별 전출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10년간 연차별로 전출하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신 것을 본 의원은 10년간 균등한 금액으로 전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연차별 금액차이가 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본예산에 전출금 반영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10년간 연차별 전출계획을 그보다 단축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께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육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사항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한 대전과학영재학교, 대전국제중·고등학교,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학중심도시 대전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에 초석이 될 것이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시간 청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염홍철 시장

존경하는 최진동 의원님께서 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비 지원과 관련한 문제 또 미전출금 408억 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10년간 연차별 전출계획을 단축할 수 있는냐는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는 당초 2013년도, 즉 금년이지요, 본예산 편성 시 과학영재학교 지원비 40억 원 중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심의결과 10억 원만 본예산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억 원을 1회 추경에 담아야 하는데 이번 1회 추경예산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담지 못하고 가능한 대로 정리추경에 30억 원을 담아서 금년 내에 계획했던 40억 원이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1년에 14억 원씩 배정돼서 총 82억 원이 원래대로 지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을 균등하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지원액수가 적고 뒤로 갈수록 많아졌다는 취지의,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해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번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08억 원인데 이와 별도로 2007년도 이후의 도안·학하지구 개발과 관련한 학교용지 부담금 256억 원이 별도로 교육청을 통해서 LH공사와 대전 도시공사에 정기적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까지 전출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408억 원 말고도 256억 원이 더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분담액수가 적고 2018년부터는 연 51억 원씩 2023년까지 10년 동안 균등 전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년을 조금 줄일 수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현재 계획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줄이는 것도 검토 하겠습니다만 오늘 현재 10년 연차별 전출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256억 원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전액 전출할 계획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최진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 김신호 교육감

존경하는 광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대전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가슴 속에 잠재된 거인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꿈을 통해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력신장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노력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창조적 프로젝트인 ‘나를 돌아보는 힐링열차’ 운영은 전국적 수범사례로 꼽히고 있고,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실시한 학생오케스트라사업 역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지속적으로 키워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의 대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귀중한 질문을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의원님께서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특별히 감사와 함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서는 대전과학영재학교 마스터플랜은 무엇이며, 지자체 지원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2014년 3월 개교는 차질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012년 대전과학고등학교가 충청·강원권의 대표 과학영재학교로 전환 지정됨으로써 우리 대전은 교육과학기술의 도시답게 그 위상과 면모를 명실상부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전과학영재학교는 2014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일반 학생,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뺀 일반 학생만 22.2 대 1이라는 전국 최고의 지원율을 보임으로써 전국적인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고 여기에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전체 응모학생 중 서울에서 29.4%를 차지했고 경기도에서 33.5%를 차지해서 수도권에서만 전체 응모학생의 62.9%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전 · 충남 · 세종 · 강원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수도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전과학영재학교와 대전광역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대전과학영재학교는 2014년 3월 1일 개교하며, 학년당 6학급, 학급당 정원 15명 규모로 전국 단위로 모집해서 학년당 모집인원 9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 3학년 총 학생수는 270명이 되겠습니다.

교원도 전국 공모를 통해서 박사급 전임교사와 겸임교수, 비전임교수 등 우수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되 무학년제, 졸업이수학점제, 리더십활동시간 하한제, 연구탐구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학기제와 계절제의 복합운영, AP·PT제도, 학문적대부제도, 다양한 인증제도, 융합교육과 그린에너지 특성화 교육과정 등을 운영해서 다른 과학영재학교들과 확실하게 차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면에서 대전과학영재학교는 기존의 본관동, 첨단 과학동, 기숙사, 식당, 체육관 등을 개보수하도록 하고, 특별교실동과 지하주차장 등은 증축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교실은 특별교과교실, 토론수업교실, 최고급 어학시설을 갖춘 영어학습실, 맞춤형 교과교실 등을 증축하게 되고 교실 14개 규모의 미래지향적 첨단도서관을 구축함으로써 영재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장님께서 지자체 지원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설립에 차질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관 및 기숙사 수선이 내년 2월까지는 확실하게 마무리될 예정이므로 2014년 3월 개교에는 차질이 없겠으나 특별교실동 증축을 2014년 말까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대전시로부터

비법정 전입금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조속한 지원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은 전에 대전과학영재학교 지원을 위해서 시청에서 올린 지원금에 대한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대전국제중 ·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첫 번째, 대전국제중 · 고 설립 재정확보 계획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두 번째, 선발전형 및 과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제고방안은 무엇이고 세 번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방안은 무엇이나, 네 번째로는 국외체험활동을 위한 수익자 경비부담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9월 우리 지역의 인문사회 계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유입되는 외국인과 귀국자 자녀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현 교육부로부터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지정 동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재정적 문제는 없는지와 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이 국제중·고 설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에는 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교육부에 학교시설 교부금과 결산 결과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설계부터 시공까지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비용이 일시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재정적 문제는 시간을 두고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잘 계획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이 국제중·고 설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또 기초과학연구원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설립하게 될 수 있는 등 많은 변수가 있어서 2015년 설립예정인 대전국제중·고등학교의 벨트 내 설립과 그 시기에 대해서 아직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따라서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부지 및 개교시기 변경 등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아마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부에서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제중학교 선발전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제중 선발전형은 학교별 추천인원을 대상으로 1단계에서 선발정원의 2배수를 추첨으로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단계 심층면접을 실시하는데 2단계 심층면접에서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외부 전문위원이 다수 포함된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걱정을 해소해 드릴 생각이구요, 사회통합전형에서는 부유층 자녀의 특례입학사례가 부당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정하는 자격과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 선발전형은 1단계에서 중 2학년과 중 3학년 영어내신점수 마이너스 출결점수로 모집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단계 심층면접을 실시할 것인데 2단계 심층면접과 사회통합전형은 중학교의 전형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사립국제중학교의 선발전형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해서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많은 시민들과 의원님 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신 바가 있는데 대전국제중·고등학교는 공립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비리발생의 소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외국의 우수사례와 타시·도 자료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전국제중·고등학교에 특색있고 우수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서 외국의 우수사례 및 타시·도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에 국내 국제중·고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저희들이 고안한 것은 일반화시키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도입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제약이 있지만 국제중학교의 특색을 살려서 일부 교과에 영어몰입교육과 다양한 국제교류, 동아리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대전국제중학교와 고등학교 공히 호주정부에서 지원하는 호주 및 아시아 국가 간 비디오컨퍼런스사업의 일환으로 화상수업 교류를 추진하고 외국인 지원현황에 따라서 교육 과정에 국제인증도 받아내는 등 우수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철저하게 준비해서 최진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걱정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국제중·고의 국외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수익자경비부담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셨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의 특성상 국외체험활동경비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자경비 부담은 적어도 일반학교 수준 정도로 책정해서 학부모의 비용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되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또는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의 국외체험활동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의 기관 등으로부터도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릴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인근 세종시에 국제고등학교가 설립돼서 대전지역의 인재유출이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정말 훌륭한 국제중·고등학교가 조속히 설립돼서 지역발전과 나라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